

카드론 받으면 신용 뚝?... 오늘부터 불이익 사라진다

대구에서 옷가게를 하는 이모씨는 매달 신용카드 2개를 번갈아가며 현금서비스로 200만원 가량을 사용한다. 이 씨는 “장사가 워낙 안돼 생활비가 급할 때마다 매달 5~6번씩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도 없고, 별다

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빠르게 대출이 가능해 계속 쓰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편리하다는 이유로 자주 사용한 현금서비스는 이 씨의 신용점수를 20점 떨어뜨려 5등급에서 6등급이 되게 했다.

총 94만명 신용점수 상승할 전망 46만명은 한단계 이상 등급 올라

앞으로 이모씨 처럼 2금융권 대출상품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신용평가 시 ‘금융업권’보다 ‘대출금리’에 가중치를 부여해 2금융권 대출을 받더라도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 받았다면 신용점수와 등급하락은 시중은행 수준으로 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소비가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회사 등 2금융권 대출시 발생하는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지난해 1월 발표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금리나 대출한도에서 불이익을 받는 소



오는 25일부터 상호금융 보험 카드 캐피탈 회사의 대출을 이용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

비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가 2금융권 대출에 대한 불이익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먼저 금융위는 신용평가 시 ‘금융업권’보다 ‘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높인다. 기존에는 카드·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 받을 때보다 신용점수 하락 폭이 3배 이상 컸다.

금융위는 또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리가 낮으면 신용점수·등급 폭이 더 적게 하락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평가시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지 않고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하락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상대적으로 낮

01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현재

제2금융권 대출 시
여신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신용점수·등급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

➔

개선

대출금리가 낮으면
신용등급 하락 폭이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

은 대출금리를 받은 소비자의 신용점수 등급이 적게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이용자 중 총 94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3점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 가운데 46만명은 신용등급이 한 등급 이상 오를 것으로 분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평가회사와 금융회사간 신용평가 체계가 정확하고 공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개인신용평가 모형의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정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보험사 RBC비율 상승... DB생명·MG손보 ‘꼴찌’

(지급여력)

비율 높을수록 재무건전성 양호 국내 보험사 대부분 100% 웃돌아

올해 1분기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MG손해보험은 100%를 겨우 넘겼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2019년 3월 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에 따르면 1분기 보험사들의 RBC비율은 273.9%로 지난해 12월 말(261.2%)보다 12.7%포인트 상승했다.

RBC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RBC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의미다.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 보유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생명보험회사의 RBC비율은 271.2%에서 285.4%로 14.2%포인트 상승했다. 손해보험회사의 RBC비율도 242.6%에서 252.1%로 9.5%포인트 올랐다.

RBC비율이 개선된 것은 가용자본이 요구자본에 비해 크게 늘었기 때문이

〈보험회사 RBC비율 변동내역〉

(단위: 억원, %, %p)

구분	'18.12월말(A)			'19.3월말(B)			변동폭(=B-A)		
	가용자본	요구자본	RBC 비율	가용자본	요구자본	RBC 비율	가용자본	요구자본	RBC 비율
생보사	893,231	329,324	271.2	971,590	340,453	285.4	78,359	11,129	14.2
손보사	429,657	177,080	242.6	455,043	180,492	252.1	25,386	3,413	9.5
합계	1,322,888	506,404	261.2	1,426,633	520,946	273.9	103,745	14,542	12.7

/자료=금융감독원

다. 가용자본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이 8조2000억원 증가하고 1분기 당기순이익도 2조원 늘면서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요구자본은 운용자산 증가에 따라 신용과 시장위험액이 1조3000억원 늘어나는 등 1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내 대부분의 보험사는 RBC비율이 100%를 웃돌며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보였다.

회사별로는 생보사의 경우 삼성생명(338.7%)과 교보생명(322.1%)이 300% 이상을 유지한 반면 농협생명(193.4%)과 흥국생명(188.5%), DGB생명(185.6%), DB생명(182.7%) 등이 200%를 밑돌았다.

손보사는 삼성화재(349.6%)와 서울보증(377.6%)이 300%를 훌쩍 넘겼다.

반면 KB손보(190.0%), 흥국화재(184.3%), 롯데손보(163.2%)는 200%를 하회했다. 지난해 5월 RBC 비율이 90% 아래로 떨어져 금융당국에 경영개선안을 제출했던 MG손보는 108.4%로 가까스로 100%를 넘겼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RBC비율을 100% 이상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00% 미만인 보험사에는 적기시정조치로 강력한 경영개선을 요구하게 된다.

MG손보는 지난해 3분기 RBC비율이 86.5%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00%보다 크게 밑돌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5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았고, 올해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2400억원 규모의 경영개선 계획안을 조건부 승인 받은 바 있다. /김희주 기자 hj89@

금감원, 28일 기업 공시역량 강화 설명회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를 위한 공시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분기마다 사업보고서 제

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이번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다수 소재하고 있는 서울·수도권 회사들을 위해 서울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유통공시, 지분공시 등 공시제도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통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공시설명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화재로 담보주택 멸실돼도 연금 받는다

주금공, 노후연금보증 규정 개정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난·붕괴·폭발·화재 등으로 없어져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 안정화를 위해 가입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주택이 재난 등으로 멸실되면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을 해지하거나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을 중

단없이 받다가 이사한 후 변경된 주택연금 수령액을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소방서·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재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보주택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조정된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삶의 터전을 잃은 가입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평생동안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KB금융, 무디스 국제신용등급 ‘A1’ 획득

KB금융지주는 24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로부터 기업신용등급 ‘A1’ 등급, 등급전망 ‘안정적(S table)’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A1은 국내 은행지주회사 중 가장 높은 국제신용등급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주요 자회사들의 재무건전성과 다변화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KB국민은행의 우수한 자본력 등이 고려되고, 추가적으로 자산규모 기준 국내 최대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위상과 중요성을 반영한 등급”이라고 설명했다.

KB금융은 그룹 차원에서 자금조달 기반을 다변화하고 조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신용등급을 획득했다. 이런 맥락에서 핵심 계열사인 국민은행도 올해 초 4억5000만 달러 규모의 해외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바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향후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수요가 풍부한 국제금융시장으로 조달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번 등급 획득은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KB금융의 대외신인도와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한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계열사인 KB증권은 무디스로부터 ‘A3’ 등급을 획득했다. 현재 국내 시중 증권사가 보유한 국제신용등급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KB증권은 국내 증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 에스앤피, 피치의 등급을 모두 보유하게 됐다.

현재 KB금융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무디스 신용등급은 KB국민은행 ‘Aa3’, KB증권 ‘A3’, KB국민카드 ‘A2’로 모두 업계 최고 수준이다. /안상미 기자